

韓國圖書館協會에 바란다

圖書館界의 期待와 여망을 안고 1955년 본격적인 活動을 시작하게 된 韓國圖書館協會는 올해로 不惑의 나이를 넘어 知天命의 나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韓國圖書館協會의 주요활동은 圖書館 發展計劃 樹立, 圖書館 管理와 運營에 대한 指導 및 育成事業, 도서관인 권익옹호사업, 도서관인 재교육 및 세미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韓國圖書館協會는 豫算規模의 영세성, 사무국 職員의 부족, 도서관인들의 협조 미흡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한국의 圖書館 發展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그 간의 韓國圖書館協會의 事業과 活動에는 圖書館人들의 期待와 바램을 充足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組織的이고 體系的이지 못한 運營과 活動이 많이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圖書館界의 절실한 當面課題는 公共圖書館長의 專門職 補任, 영세한 資料購入費 확충, 운영비 확충, 절대부족한 司書職 충원, 圖書館電算化를 위한 정부차원의 豫算支援 등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對策 樹立과 치밀하고 組織的인 活動을 展開하여야 한다. 따라서 韓國圖書館協會는 協會 自體의 活性化 뿐만 아니라 圖書館界의 發展, 對政府 活動 등에 있어서 보다 體系的이고 組織的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난날 組織的이고 體系的이지 못했던 韓國圖書館協會는 이전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심기일전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견인차로서의 役割과 使命을 다할 수 있도록 韓國圖書館協會에 바라는 몇가지 사항을 提示하고자 한다.

첫째, 韓國圖書館協會 자체 長·短期發展計劃을 樹立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단기발전계획이 있어야 圖書館 發展基金 確保, 한국도서관협회 단독 건물 건립추진 등의 政策事業을 과감하게 推進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라 資料出版을 통한 收益事業을 活性化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각종 研修 및 講座를 開設하여 司書職의 자질함양과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장·단기발전계획없이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정책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며, 圖書館人의 숙원사업은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년내에 한국도서관협회 장·단기발전계획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發展計劃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樹立하기 바란다.

둘째, 理事會 및 專門委員會 구성 등에 있어서 人事配置의 合理性을 圖謀하여야 한다. 韓國圖書館協會의 모든 인사는 경력과 업적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절하게 安배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分野의 論文 한편 없는 사람이 專門委員으로 活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理事會는 관종별, 직능별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韓國圖書館協會의 모든 人事는 실질적으로 韓國의 圖書館界를 代表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인을 대우해 주거나 감투를 안겨주는 식의 인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관종별로 均衡있는 發展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실 大學圖書館이나 專門圖書館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은 政

策的으로 制度的으로 育成·發展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중에서 韓國圖書館協會의 정책은 公共圖書館에 偏重되어 있고, 學校圖書館 發展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였다. 學校圖書館의 발전없이 公共圖書館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학교시절부터 圖書館을 利用하는 習慣이 길러져야 사회에 진출해서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하루아침에 公共圖書館의 利用을 期待할 수는 없다. 學校圖書館 政策의 貧困과 無關心으로 인하여 과거에 학교도서관에 몸을 담아 열심히 활동하던 뜻있는 분들은 모두 學校圖書館을 떠나 버리고 현재의 학교도서관은 기아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學校圖書館 發展을 위한 政策을 樹立하여 과감하게 推進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간선제로 되어 있는 會長選出方式을 直選制로 轉換하여야 한다. 韓國圖書館協會의 會長은 韓國圖書館協會 全體會員의 集約된 意見을 모아 選出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회원 모두가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결속력도 높아진다. 일부 몇사람이 회장선출을 해서는 공신력을 높일 수도 없고, 全體會員의 支持와 關心에서 멀어지게 된다. 현재의 會長選出方式은 총회에서 地域別, 館種別로 선출된 40인 이내의 평의원들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선출함으로써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지 않아 회원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會長은 어떠한 公約이나 政策을 提示하지도 아니하고 회장에 취임하여 事業推進이나 政策事業을 과감하게 추진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次期 會長選出方式은 간선제에서 直選制, 立候補制로 轉換하여, 임후보한 회장후보자들은 한국의 圖書館 發展, 對政府 活動 등에 대한 公約과 政策을 제시하고 모든 회원들의 直接投票로 選出하여야 한다. 선출방식은 모든 회원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에 會員 個人에게 各 候補의 公約과 政策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記名式으로 選舉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會員들의 意見이 集約되면 協會와 圖書館界에 대한 會員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결속과 團합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會長은 公約으로 제시한 政策과 事業을 果敢하게 推進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각종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여 情報化時代의 기수로서의 使命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회장단과 임직원들은 우리나라 圖書館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물론 韓國圖書館協會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여 바람직한 事業과 政策은 계승하고, 不足하거나 改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事業과 政策을 개발하여 과감하게 業務를 推進하기 바란다.

우리의 協會는 우리가 살려야 하고, 우리나라의 圖書館界는 우리 도서관인의 손으로 發展시켜야 한다.